



미술적 힘 꿈꾼 우리의 구술세계

김태준 · 동국대 국문과 교수

문자(글)를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는 우리들은 '쓰기' 이전의 세계 내지는 '쓰기'라는 문화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세계를 상상하기 쉽지 않다. 물론 '구전(구비)문학'의 세계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 또한 '쓰기'라는 이차적인 문화구조를 전제로 한 이름이며, 일차적 문화구조로서 '구술성'의 세계를 시대착오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미술적 힘 꿈꾼 구술문학

요새 이른바 'کم'이 '네티즌'보다 더 많듯이 지구 위에는 말만으로 살아가는 문명이 더 많다. 실제로 쓰이고 있는 3천여 가지의 언어 가운데서 문학을 낳을 정도로 기술할 수 있는 언어는 106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윌터 J. 웅). 이것은 언어가 기본적으로 문자와 관계 없이 구술 곧 목소리에 의존하는 것인 사실을 확인시켜 주며, 이 점은 문자 이전의 구술세계를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구술문학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신화·전설·민담·서사시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장엄하고 전능한 자연의 위력에 필적할 미술적 힘을 꿈꿨다. 주술적 제의와 주문, 기도도 자연의 위력에 경배할 뿐 아니라, 빛과 태양처럼 힘을 가지며 위를 향해 성장하는 힘을 추구했다. 그것은 자연과 경쟁하듯 거대한 크기의 사원과 왕릉을 남긴 조형적 욕구나 반구대의 거대한 암각화에 사냥할 동물을 새겨 정복을 상징했던 예술적 창조력과 같은 문화적 발상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은 구술문화 속에서 사고를 나타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고, 삶과 행동의 양식이었다. 기술문화는 기억가능한 사고방식 위에 바탕을 둔다. 이 기억가능성이야말로 바로 구술문화의 재현가능성이기도 했다. 리듬과 정형구와 반복법, 자연적 질서와 순환구조, 영웅과 조력자와 반대자 등.

한국의 모든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왕과 물에서 떠올라온 왕비의 대칭을 이루고 전설은 증거물을 가지며, 민담이나 민요는 반복적이거나 병렬적이다.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에 정착될 때까지 구비로 전해왔으며, 《동명왕편》을 쓴 고려의 이규보는 이 이야기가 나무하는 초동까지도 모두 외고 있다고 했다. 문자 이전 사람들의 기억력과 기억에 따른 재현과 구술은 구비(口碑)로 비석처럼 굳어진 텍스트를 이뤘다.

그리하여 한국의 모든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왕과 물에서 떠올라온 왕비의 대칭을 이루고, 전설은 증거물을 가지며, 민담이나 민요는 반복적이거나 병렬적이다. 단군신화는 《삼국유사》

에 정착될 때까지 구비로 전해왔으며, 《동명왕편》을 쓴 고려의 이규보는 이 이야기가 나무하는 초동까지도 모두 외고 있다고 했다. 문자 이전 사람들의 기억력과 기억에 따른 재현과 구술은 구비(口碑)로 비석처럼 굳어진 텍스트를 이뤘다.

기억력과 기억에 따른 재현

우리나라의 구비문학은 《삼국유사》와 《수이전》의 설화와 전기(傳奇)를 비롯해 무당의 노래[巫歌]와 판소리, 민속극과 민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민간문학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 문자로 전하는 한문학·국문학과 함께 세갈래가 한국문학을 이루고 있지만, 북한한문사에서는 특히 구비문학을 중시하는 성격이 뚜렷하다.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이 퍼낸 《구비문학대계》 80여권은 중요한 정리사업이지만, 지금도 사찰연기설화나 6·25 전쟁체험담 등 '현대구비'에서 보통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구술역사에 이르기까지 정리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속제로 남아 있다. ❖

인간과 친화성 높은 구술언어

임명진 · 전북대 국문과 교수

인류의 역사 약 5만년 중 문자를 사용한 것은 그 십분의 일 정도에 해당하는 오천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 오천년 중에도 '쓰기'가 일반화된 것은 수백년을 넘지 못하니, 문자문화의 보편화는 인류사의 1%도 되지

않는다. 즉, 인류는 유사 이래 그 대부분을 구술문화(口述文化)로 영위해온 셈이다. 게다가 세계 도처에 아직도 문자와 무관한 생활을 하는 문화권이 남아 있으니, 구술문화의 성격은 인류의 고대생활을 이해하는 데는 물론이요, 현대 문화를 탐구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행위나 힘으로써의 구술언어

구술문화의 말로 된 언어는 '쓰기'가 일반화된 문화의 문자언어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이 분야에 관심을 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페리·로드·하블로크·구디·웅·맥루한 등은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구술성이 문자성보다 훨씬 본질적이라는 깨달음을 강화시켜왔다.

이 가운데 언어와 인간의 감각체계 및 사고체계와의 관계를 탐구한 웅의 견해가 주목할 만하다. 그는 문화의 단계를 전달매체의 변천에 따라 구술단계, 문자단계, 전자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언어가 인간의 사고체계와 어떻게 관련 맺는가를 고구한 바 있다. 특히 구술언어와 문자언어를 비교·대조하면서, 전자는 '행위'나 '힘'이지만 후자는 말을 상징하는 기호일 뿐이며, 또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욱 강한 공동체 의식과 주술적 효과를 지니며, 그래서 전자가 후자보다 인간의 사고와 강한 친화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웅은 현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문자문화의 폐쇄된 사고체계에 젖어들고 내면화돼 가고 있음을 일깨워주면서, 아울러 전통적인 구술문화의 특성이 어떻게 인류의 문화발전엔 긴밀하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풍부한 예증과 논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로드

문자를 전혀 모르는 문화에서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상황중심적이고 첨가적이며 기억술의 방편으로 정형화된 레파토리와 표현법을 개발해왔다. 전자문화는 본질적으로 쓰기의 단한 사고체계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구술문화와는 분명한 변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현대인은 구술문화도 문자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나 하블로크·구디의 현장조사 작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구, 시베리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등에 잔존해 있는 전통적 구술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오늘날의 문자문화와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예시

하고 있다. 특히 문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에서 사물과 현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상황중심적이고 첨가적이며, 기억술의 방편으로 정형화된 레파토리와 표현법을 개발해왔음을 간파해내기도 했다. 중세 이전의 문학에서 광범하게 발견되는 공식화된 수사나 모티브들이 그런 기억술의 소산이라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제3의 문화로서의 전자문화

오늘의 전자문화는 문자문화의 연장선에서 생겨난 것이면서도 구술문화적 속성도 상당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웅은 이를 제2의 구술문화라고까지 지칭하기도 한다. 집단 의식이 강하고 소통방식이 일정하게 정형화된다는 점에서 구술문화적 특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화는 본질적으로 쓰기의 단한 사고체계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구술문화와는 분명한 변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전자문화가 지닌 소통의 광역화, 익명화 등은 전통적 구술문화와는 매우 다른 특성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인은 구술문화도 문자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전자문화에서 언어의 지시대상과 기호와의 분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우리는 문자문화의 특성 과도 상당히 이겨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구술문화로의 회귀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미 우리는 문자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전화·컴퓨터통신·대중매체 등의 다양한 소통현장에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